

시

임금남

시의 씨앗

저물어 가는 가을
한 생을 다한 낙엽 속에
시 한수 반짝인다

이거다
내가 찾아 헤메던 고귀한 씨앗
해묵은 고목에서
고로쇠 물보다 진한
참기름 맛의 고소함이

원고지 위에 흘러내려
이리 고운 꽃송이
피어날 줄이야

이윽고 꽃잎은
팔도강산 흩날린다

약력

▶아시아 서석문학 이사
▶시집 '보름달을 삼키다'
▶화순군민신문 전속 시인



시

김홍호

할미새와 할미꽃

하늘보고 땅을 보다
절벽에서 만나
웃으며 쓰다듬는 모습
우주를 품안에 넣고
푸른 동강을 벗 삼아
만고에 평화를 누리는
할미새와 할미꽃
어느 영웅호걸인들
이런 천연의 옥방에서
알콩달콩 이웃으로
천하에 씨를 뿌리네

약력

▶문학예술 시 등단(2010)
▶광주문협회원, 광주시협 이사
▶서은문학이사, 문학예술 광주지회 회원
▶시집: '느림의 미학', '길센의 숨소리'



동시

강정삼

네모 속 그림세상

거실 유리 창문
이쪽저쪽 활짝 열어두면
네모 난 액자 그림판

매화, 산수유, 꽃들의 그림
고목 고향 소나무
한 아름 은행나무
모두 뽕 쯤 키 쯤 자랑
동백 식구들 정원 가득 가득

유리창 네모 액자엔
수채화가 가득이네

아이가 그린 그림책처럼
오래 두고 간직할
우리 집 미술첩

약력

▶한국문인협회 문학유적탐사위원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한국아동문학인 협회 회원
▶광주 전남 아동문학회 감사역임
▶나주문인협회 창간 및 회장 역임
▶시, 소설, 아동문학, 신문 칼럼 집필
▶한국아동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수상



평설몇마디 (박덕은 문학평론가)

▶동시 <네모 속 그림 세상>
거실 창문을 활짝 열면 매화와 산수유가 하나의 그림판으로 다가온다. 계절마다 거실 창문은 또 하나의 그림판이다. 열어 둔 창문을 액자로, 바깥 세상을 그림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멋지다. 동심의 프리즘으로 바라본 세상, 해맑고 곱다. 인간성 회복의 오솔길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깨끗해진 마음으로 네모난 거실 유리 창문 안에 간혀, 동백 식구되어 오순도순 파스하게 살아가고 싶다. 진정 아름다움과 순수를 만나 꽃처럼 소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수채화처럼 그림책처럼 살고 싶다.

▶시 <할미새와 할미꽃>
할미새와 할미꽃은 생(生)의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서 만난다. 그 절벽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회복하며 평화를 누린다. 코로나 시대라는 절벽에서 만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시는 관계성의 회복이다. 할미새와 할미꽃과 동강은 서로 이웃이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인간들이, 제발 배워라. 오늘부터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라, 제발. 그 소리가 촉촉이 들려오는 듯하다.

▶시 <시의 씨앗>
한 생을 다한 낙엽 속에서 시는 반짝이고 있다. 시인은 그 반짝이는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원고지 위에서 고운 꽃송이로 피어나게 한다. 찰나를 잘 포착해 시의 씨앗을 품은 시인의 감성이 예사롭지 않다. 정서 속으로 파고들어 깨달음과 발견을 안겨주는 시, 이런 시를 만나면 행복하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시의 씨앗이 가슴속에 뿌려져 꽃이 피어나 내뿜는 향기를 듬뿍 선물 받는다. 기분도 상쾌해진다.

▶수필 <하늘 메아리>
인생의 이면에 깊숙이 감춰진 보물을 찾기 위한 고뇌, 이 글은 그 고뇌에서 시작된다. 한국인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랑'이며 죽음을 앞둔 이가 가장 하고 싶은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파랑새는 사랑이라며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수필의 매력은 역시 사색의 터에서 깨달음 방울을 맛보는 재미에 있다. 여기서 사람도 배우고 우주도 알고 감정의 다채로움도 만난다. 하늘 메아리를 만나 행복의 길, 사랑의 가지도 익힌다. 그래서 수필이 있는 세상이 참 좋다.

수필

하늘 메아리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소리쳐 부르면 하늘 끝 어디에선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 아스라이 먼 별에서 이승을 떠난 영혼들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만 같다. 그럴 때면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다고 한다. 별과 비와 꽃을 좋아하는 나는 오늘도 별이 빛나는 밤에 밤늦도록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봄날 새싹처럼 솟아나는 기억들을 감무리하여 꽃처럼 아름답고 정감 어린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리하여 문학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을 안다는 의미이리라. 그래서 사랑과 행복한 삶을 위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고뇌하고 있다. 인생의 이면에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천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감정은 즐거움, 슬픔, 역겨움, 분노, 두려움, 질투, 죄책감, 사랑, 희망이라는 아홉 빛깔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들은 매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생각을 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생각은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거나 느끼는 감정을 비롯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끌어들이는 결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염원하면 그것이 우주로 전송되어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생각은 감정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며,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길이다. 따라서 인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먼저 깨달은 자가 늦게 깨달은 자보다 앞서가기 마련이다. 문화는 먼저 깨달은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늦게 깨달은 자는 그것을 배워서 따라갈 뿐이다. 인생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 깨달음 중의 하나가 언어이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 그 말들이 우주 공간에서 하늘 메아리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면, 또는 그동안 지구에서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그 말 속에는 얼마나 진실되고 사랑이 깃든 말이 있을까?

한국인들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은 '사랑'이라고 한다. 아기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도 사랑이다.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또 삶이 1주일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도 사랑이라고 한다. 인간이나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사랑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 과학자들은 동식물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꿀벌의 언어는 그들의 춤이다. 꿀벌이 추는 춤에는 꿀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

와 방향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에는 지혜로운 생각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천억 개 이상이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은하계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500억 개가량 있으며,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이 5억 개나 된다. 그중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만약 지구 밖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언어나 신호 체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다양한 언어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한한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푸른 하늘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아름다운 꽃과 자연이 있는 지구에서,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생과 사의 극한상황에서,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공허한 우주 공간에 메아리치도록 외친 언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만큼 소중한 것도 없기 때문이리라.

약력

▶'한국수필'(1994) 수필, '문학춘추'(2001) 평론 등단
▶한국문학 국제문학교류원,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광주문협 평론분과위원장
▶저서 : 한국현대수필작가 대표작선집 '하늘 메아리'와 9편
▶세종문학상, 수필문학상, 공무원문학상, 전남문학상
▶국제PEN광주문학상, 올웨의 작품상, 아시아서석문학상 대상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100km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나이스3L (캐노피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WOO
|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352-3010(내선2번)
061)872-8880,1

고흥지사 010-2548-7111
광주중앙영광지사 010-3611-5251
광양대리점 010-5355-1292
나주대리점 010-3626-3848

함평대리점 010-2602-6501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

CMYK